

# 모든 당세포를 당중앙을 받드는 억척불변의 초석, 당정책관철의 결사대로 만들자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2일회의 진행



### 1 면에서 계속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삼모당세포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 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어 생산을 높여나가는데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고리로 내세우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었다.

뜨거운 동지적사랑에 기초하여 당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 사상요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설비개조와 새 제품개발에 적극 열쳐나서도록 하였으며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최대한 발양시켜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였다.

연안군 소정협동농장 제3작업반 부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에 또 하나의 경험을 찾았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제일 착박하고 조건이 불리한 수심정보의 포전밭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과학농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으며 작업반안에 혁명적 열정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적열의를 앙양시켰다.

이 나날 농장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고 대오안에 서로 돌

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며 작업반은 해마다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인민보안원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직하고 《인민복무수첩》의 갈피마다에 당적광심을 새기며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도록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토는데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대회참가자들은 토론들을 통하여 당중앙의 의도대로 당세포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갈 때 전당이 강화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더 깊이 새겨안았으며 전형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따라배워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해 나갈 의지를 가다들었다.

대회에서는 일부 단위들에서 당세포사업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지지 못하고있는 현상과 부족점들이 분석되고 극복방도들이 토의되었다.

토론들에서는 일부 당세포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훌륭히 조직동원하지 못한 문제, 일부 당세포위원장들이 폐쇄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그릇된 사상관점과 전담식

일본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문제, 당세포위원장대렬을 잘 꾸리지 못하고 당세포위원장을 도와 주고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지 못한 문제들이 비판되었다.

대회에서는 모든 당세포위원장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당세포위원장이 사업과 생활에서 당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어들어 대중을 무장파 위훈으로 선도해나갈 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를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맡아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위상을 빛내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진군나팔소리를 더욱 높이 울리며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정보단

